

# 文정부 마지막 개각 초읽기...정 총리, 이르면 이달 말 교체

### 정세균, '대권 도전' 4·7 선거 후 사의 전망...4월 말~5월 초 사퇴 예상 홍남기 부총리 및 국토·농림·해양·산업·고용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4·7 재보궐선거 후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 인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달 4·7 재보궐선거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난 1일 총리 브리핑에서 '4·7 선거 후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시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후 사의 의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미 정 총리는 올해 초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자신의 향후 정

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차기 대권에 도전 하겠다고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공감대 속 선거를 치른 후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는 셈이다.

정 총리가 선거 후 처음으로 갖는 오는 12일 주례회동에서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 관측이 있다. 한편에선 주례회동에서 다른 배석자들이 자리하는 만큼 정 총리가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전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 한국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의 석방 문제를 풀기 위해 이란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총리 취임 후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일정이다. 이후 차기

총리 지명과 국회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4월 말이나 5월 초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차기 총리로 경제 전문가 출신의 '관리형 총리'나 '여성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관리형 총리는 선거 후 민심을 수습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회법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나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여성 총리 기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평등 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영란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초기 행정안

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을 차기 총리 후보로 꼽는다.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이낙연, 정세균)에 몰렸던 지역을 영남에 안배함으로써 임기 말 화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호남 출신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거론된다.

정 총리 사의 후 경제부총리와 장관

등에 대한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란 기록을 세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후임 인사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

기로 지난달 12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도 예고돼 있다. 이밖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른바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숙 여사가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순천 주윤식 도의원 후보 기자회견

### 민주당 한춘욱 후보 토지 투기 의혹 사퇴 촉구

순천보궐선거 기호6번으로 출마한 주윤식 후보가 1일 오전 11시에 순천만정원으로 주윤식 후보선거 사무실에서 민주당 한춘욱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가졌다.

민주당 한춘욱후보가 다수에 땅 투기 의혹으로 후보사퇴와 선관위에 고발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후보자명의로 토지가 5필지이며 배우자명의로 4필지 중 1필지는 충남당진시 정곡리 16-12번지의 경우 기획부동산법인으로 보이는 세정아이엔다가 5497만원에 매입한 토지가 하루 뒤인 7일에 한춘욱배우자가 9799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투기목적이라며 2배 가까운 4300만원 더주고 산 것에 의혹을 제기 했다. 해당 토지는 반경 5km부근은 국내굴지의 현대제철과 아산국가산업단지,당진철강산업단지, 송산일방산업단지 등 투기목적으로 한 기획부동산의 결탁을 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 후보가 순천시민을 상대로 해명하지 않은 모습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 후보자가 16억8천만원에 42주식을 보유하고 상장주식22개와 비상장주식 20개를 투자하고 있는 주식여왕이라고 비꼬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춘욱 후보 측에 여러통의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

순천=조광제 기자



순천=조광제 기자

## 김회재 의원, 여수공항 주차난 해소

### "주민 편의와 이용객 만족도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여수시, 국토부, 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여수공항에 주차면적 150면을 확보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 확보돼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차장 설치의 여수공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주차장이 운영을 시작하면, 기존에 여객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던 상

주직원 차량 150여대가 줄어들어 여객 주차 수용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여수공항은 국내 노선 운항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이용객의 증가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주차장 확장으로 여수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들이 여수공항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 송영길 "박주민, 어제 9.3% 내려 임대차 재계약...힘내라"

### "이게 민주당이고 박주민...해명보다 실천으로 화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된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를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시어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기준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는 박주민을 비판하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기자들과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박주민은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 거야'라는 기대

를 해왔고 지금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맴게 야단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위선의 프레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 의원의 임대 재계약에 대해 "관행을 방치한 방식과 불철저함을 반성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 힘내라 박주민"이라고 응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소유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했을 때 임대료

를 9.1% 올려받았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시 임대료를 종전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기존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는 했지만 박 의원이 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요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주민 의원이나 김상조 실장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5%(전월세 인상률)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자기들 말 주장과 달리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라며 "5%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하면서 자기들은 그 직전에 올려 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 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